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전공교수

취임 23주 차의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의 분기점에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대체로 '30대 긍정 평가와 60대 대 부정 평가의 흐름'이다. 당분간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관심은 대통령이 상승 동력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느냐로 모아진다.
지금 윤 대통령은 '신뢰의 위기' 끝자락에 있다.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의 문' 앞'에 사람들이 충분히 모여 있고 그 가까이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중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취임부터 한 달 정도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신뢰도가 50%를 넘었지만 6월 말~7월 초 역전되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대통령 신뢰의 위기'가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는 뜻이다. 7월 초 '52%(불신) 대 42%(신뢰)'였다가 10월 초에는 '63%(불신) 대 34%(신뢰)'다. 이 조사의 대통령 국정 운영 신뢰도는 8월 이후 계속 하락세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나타나는 긍정 평가 이유인 '국민과의 소통을 잘해서'가 줄어드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축소 지향적이

윤 대통령의 몫이다 (2)

다. 5월 10일 취임 이후 최근까지 21주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145개. ARS가 104개로 대부분이고 면접 조사는 41개다. 145개 전체 조사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대통령 국정 평가는 평균 37%, 부정 평가는 평균 57%로, ARS 조사가 면접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 평가는 낮고 긍정 평가는 높은 경향을 보이곤 한다.
지난 21주 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세다. 대통령 국정 평가는 취임 첫 주부터 5주차까지 주별 평균 50% 이상을 기록하는데 최고점은 6월 1일 지방선거 직전 주의 평균 54.6%였다. 부정 평가도 36.6%로 이때가 가장 높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6주 차부터 50%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후에는 주별 평균이 40%대 30%대로 하락한다. 13주 차에 이르러 결국 주별 평균 28.9%를 기록하는데 같은 시기 대통령 국정 평가의 부정적 의견은 주별 단위로는 최고인 평균 67.5%에 이른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까지 주간 단위로 평균 29.3%, 30.4%, 32.5%, 31.1%, 32.8%, 34.8%, 32.8% 그리고 31.4%로 이어진다. 취임 10주 차 이후 최근까지 대통령 국정 평가의 부정적 의견은 주간 단위 평균으로 최고 67.5%(13주차) 최저 61.8%(18주차)를 기록한다.
유권자 열 명 중 세 명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열 명 중 여섯 명은 반대하는 여론은 최근 몇몇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해의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해 '외교적 참사' 64%, '언론 왜곡' 28%로 나타나고, 'MBC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

응'에 대해서는 '과도한 대응' 59% '적절한 대응' 30%,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에는 '동의' 70% '반대' 27%로 조사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윤 대통령 대선 승리 연합의 해체다. 중도(보수) 지지층의 이탈이다. '30% 초중반의 보수와 중도 그리고 20% 후반의 진보'가 최근 확인된 우리나라 유권자의 이념 성향 분포인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수층으로 국한되어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대체로 여당 지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도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의 지지 기반이 국민의힘 지지층조차 지지 못한다는 뜻이다. 최근 조사들은 역대급 규모의 무당파 특히 2030세대 무당파의 증가를 확인한다.
구성원의 믿음을 잃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위기의 입구에 불과하다. '능력의 위기'다. '무능의 문(門)' 안으로 들어서면 끝장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비판적인 이유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능력의 위기 징조이다.
권력의 평가는 구성원의 '목인과 공감 그리고 동의와 지지'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 정도도 이루어진다. 득표율과 지지율은 동의와 지지를 수치로 표현한다. 긍정적 권력 평가의 최소한은 목인이지만 최대치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다. 공동체 구성원의 믿음과 함께하는 권력이 성공하는 권력의 출발점이다.
대통령이 판을 바꿀 때다. 목표와 배짱 그리고 자기 확신의 강성이 위기 돌파의 개혁과 포용의 정치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몫이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요즘 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을까 싶은 무분별한 언동들을 보면서 여러 해 전 청년 지도자 훈련에 참석한 K 씨의 발표가 새삼 생각난다. 필자가 당시 청년 훈련을 심화시키기 위해 원불교 훈련 과정을 정하고 솔선수범(率性斐論) 중에서 제목을 정하여 강연 연습을 시켰는데 그때 K 씨가 뽑은 제목은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뎌주어 자기의 그릇을 깨칠지언정 그 그릇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라는 솔선수범 10조였다.
그는 먼저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를 몇 가지 경우로 설명하였다. 소문의 주인공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한 화제거리를 얻은 것처럼 흥미를 가지고 전파하기에 바쁜데 재주껏 상상을 보태어 과장하며, 더욱이 상대가 자기와 경쟁이나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일 경우는 아주 목은 체증이 가시는 것 같은 쾌감을 느끼며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부풀리고 광고하는 데 열을 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도 그 소문이 자기

청년 지도자 K 씨의 발표

와 연관될 소지가 있을 경우, 즉 같은 조직의 일원이거나 자기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을 경우는 부지런히 관계를 정리하여 그 조직에서 탈퇴를 시키거나 아니면 스스로 멀리하여 친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려는 등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그 소문의 주인공이 자기의 형제이거나 부모일 때는 우선 부인하고 깎뎌서 사건의 경위와 사실 여부를 알아보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바탕 하여 우리가 취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하여 요령 있게 정리해서 발효한 K 씨의 5분 설교는 나로서는 단순한 평점의 대상이 아니라 큰 교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당시 학생이었던 그가 이제 대학 강단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학자로 성장하기까지 10여 성상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K 씨의 그때 그 강연 내용은 지금도 나의 솔성의 한 표준으로 자리하고 있다. 일원상을 신앙한다는 것은 만유가 한 체성임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만유가 한 체성인 그 자리엔 나 이외의 남이 있을 수 없다. 시방 일가(十方一家)요, 사생일신(四生一身)이다. 성자들의 마음은 바로 어떤 중생도 남으로 보지 않는 마음이다. 모두가 내 형제요, 내 권속이다. 시방의 모든 동포도 그럴진대 한 스승 밑에 한 목적으로 모인 법연들이야 더욱 가까운 사이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내 부모 같고 내 형제 같은 사람 사이에 어떤 허물을 보았을 때나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

떠한 태도를 가져왔던가.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선전하기에 바쁘고 과장하기에 바쁘고 비난하기에 바쁘지는 않았는가. 대부분 소문은 가까이 가서 그 진위를 살펴보면 사실무근인 경우가 오해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혹은 사실의 경우에도 알고 보면 인간적 이해가 가는 일들이며 나도 그런 경우를 당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일들이 경우도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엉뚱한 소문에 휘말릴 때도 있다. 그럴 때 정말 가까운 마음이 되어 내 형제 내 부모의 일로 알고 당인들의 심정이 되어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경계망동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깊은 산속에 사는 토끼 한 마리가 도토리 한 알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땅이 꺼진 줄로 알고 크게 놀랐다. 그래서 "땅이 꺼졌다"고 외치며 앞을 다투어 도망갔다. 한참을 달려가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어디에 땅이 꺼졌는가를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 원인을 찾아 보니 토끼 한 마리의 놀람에서 시작된 것을 알고 모두들 어이없어 했다. 인간 세상에 이런 일들은 흔히 있다. 부화뇌동하는 군중 심리가 그런 것이다.
다변화되고 민주화되어 가는 사회일수록 냉철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수행인은 먼저투성이의 시골벽처럼 이 세상에서 항상 스스로를 관조하고 냉철한 자기반성과 수행 정진이 있어야겠다.

기고



박안수
남광주농협 사외이사·경제학박사

정부는 여성 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 매년 10월 15일을 '여성 농업인의 날'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 농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하여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 농업인의 날은 유엔(UN·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과 동일하며 기존의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11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물론 농업인의 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추가로 '여성 농업인의 날'을 별도로 제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작금의 우리 농업 현실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작년

'여성 농업인의 날'의 의미

쌀 수확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쌀값 하락과 아울러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미국 달러의 초강세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농가 소득의 손익분기점은 고사하고 대다수 수입 곡물인 농후 사료(배합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존립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3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농업 직불금 증액으로 내년 공익 직불금이 3000억 원이 증액됐다는 사실이다.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인 '고향 사랑 기부금법'은 농가 소득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농업의 디지털화와 스마트 농업으로 많은 발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농업인은 고된 농작업을 시작으로 육아, 농촌 생활 개선, 그리고 가족 봉양 등 농촌에서의 힘든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에 걸맞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는 각각 연 20만 원, 10만 원에 해당하는 여성 농업인 바우처를 시행하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영암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농약 중독 등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을 모든 여성 농업인으로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농업 분야 정책 수립도 농림식품부 다수 여성 고위 담당관이 정책을 입안·시행하고 있고 과거 경성

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여성원장이 딸아 농업정책을 훌륭히 추진한 사례도 있다. 초보 농부였던 전라북도의 유희경 씨팀은 네덜란드에서 열린 제3회 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여성 후계 농업인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귀농 귀촌하는 여성 농업인이 점차 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농협에서도 여성 농업인의 자율적인 모임인 (사)전국농가주부모임이 가장 거대한 여성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매일 '새농민상' 선정 시 부부 공동 명의로 수상을 할 만큼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뿐만 아니라 수해 전부터 여성 농업인 증가에 발맞추어 복수 조합원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것은 물론 지역 농협에서는 여성 농업인 조합원이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여성 대의원과 임원 수를 정관에 의무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한다.
미래 농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먹거리를 담당하는 식량 안보의 경제적 기능은 물론 자연환경적, 사회문화적인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함께 최근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도시 농업과 치료 농업 등의 역할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농업의 변화에 여성 농업인은 식량 생산과 안보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농촌 발전을 이끄는 실질적인 주역이라 할 수 있다. 여성 농업인의 날 지정으로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이 이뤄지고 정당한 대우와 권리가 주어지길 희망해 본다.

社說

외국인 투자 수도권 집중...호남 고작 1%라니

해외 자본이 인구 및 경제 기반이 쏠려 있는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 명목으로 집행되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형회계)가 수도권에도 분배되면서 불균형 발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홍민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 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국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1234억 38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4.4%(795억 4500만 달러)가 몰렸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은 5년간 고작 13억 1300만 달러(1.1%)를 유치하는데 그쳤다. 특히 광주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1억 2500만 달러에 머물렀다.
수도권은 이처럼 해외 투자를 독식하면 수도 국가 균형 발전을 취지로 도입된 균형회계 예산까지 쟁겨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집행된 균형회계 24조 4744억 원 가운데 광주에는 1200억 원, 전남 1473억 원, 전북엔 2723억 원이 배정됐다. 한데 이 예산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도 1198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수도권은 주어진 균형 예산을 전액 사용하는 반면, 지역은 공모 사업으로 지방비까지 매칭해 확보해야 하는 등 이치고를 겪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국내외 자본이 인프라와 접근성이 열악한 지방에 투자를 꺼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균형회계마저 수도권에 몰아간다면 이는 불균형 발전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방 시대'를 표방한 현 정부는 해외·민간 자본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국가 재정 배분 기준을 쇠락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부영주택 수선충당금 인계 미적대는 이유 뭔가

특별 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입주자들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되면 주택사업자가 새로운 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를 넘겨 줘야 한다. 한데 부영주택이 입주자들이 모아 온 10억 원대 특별 수선충당금을 분양 전환 2년이 다 되도록 인계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하남부영 3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부영주택 측이 지난 2020년 11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될 당시 적립된 12억 6800여 만 원의 특별 수선충당금을 여태껏 넘겨 주지 않고 있다며 광산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부영주택은 해당 아파트를 지난 2009년 5월 준공, 공공임대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매달 970여 만 원씩 특별 수선충당금을 적립, 부영주택과 광산구청이 공동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보관해 왔다.
하지만 분양 전환 직후인 2021년 초 아

파트가 보유한 수선충당금은 단 14만 원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은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 등 안전 관련 수리 작업도 돈이 없어 할 수 없었다.
광산구는 이와 관련 부영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청 측은 특별 수선충당금 적립 통장이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전 인계를 위해서야 부영주택이 함께 절차를 밟아 줘야 하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반열에 오르고 있는 부영주택 측이 관련법을 어겨 가면서 입주자들이 10년 이상 적립해 온 돈을 넘겨주지 않고 있는 까닭을 이해하기 힘들다. 입주자들이 "황령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욕까지 제기하는 이유다. 부영주택은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선충당금을 조속히 인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지 않나.

無等鼓

세계 최고의 운송 시스템을 갖춘 일본은 열차 시간이 어긋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지난 2017년 한 열차 회사가 예정 시간보다 단지 20초 빠르게 출발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회사는 스스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을 정도이다. 또 지난해에는 한 열차 회사가 기관사 실수로 도착·출발 시간이 각각 1분씩 지연되자, 기관사 월급의 일부를 삭감해 법적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일부러 열차를 1분씩 지연 출발시키는 곳도 있다. 뉴욕시 통근열차에는 운행과 관련해 일부 직원 취급, 배상 대상이 되는 비밀(?)이 숨어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만 열차를 의도적으로 1분씩 늦게 출발시킨다는 것이다. 즉, 오전 8시 출발이라고 안내판에 나와 있어도 실제 출발 시간은 8시 1분인 것이다. 위의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분초를 지키는 열차 서비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 같은 '1분의 비밀'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힘든 일상을 사는 승객들이 출퇴근에 늦지 않기 위해 매일 뛰어야 하는 어려움을 배려한 것

이라고 한다. 뉴욕발 통근열차는 하루 900량에 달하지만 일단 한 번 놓치면 최소 30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기차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승객이 '1분의 비밀' 덕분에 승차한 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회사 측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열차는 정시에 출발한다는 공식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제철도연맹의 열차 정시 기준은 '16분 미만 지연'이다. 즉 지연 시간이 15분 59초까지는 정시 열차로 보지만 16분 이상이 늦어지면 열차 지연으로 취급,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 철도 회사들은 열차 지연 규정은 국제 기준을 따르면서, 배상 기준은 16분이 아닌 '20분 이상'을 적용하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런 이중잣대로 배상을 받지 못한 승객이 5년간 2322명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 철도도 일본과 같이 정확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뉴욕처럼 1분의 여유를 둘 수 있는 고품질 시스템을 갖추길 기대해 본다.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지연 열차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